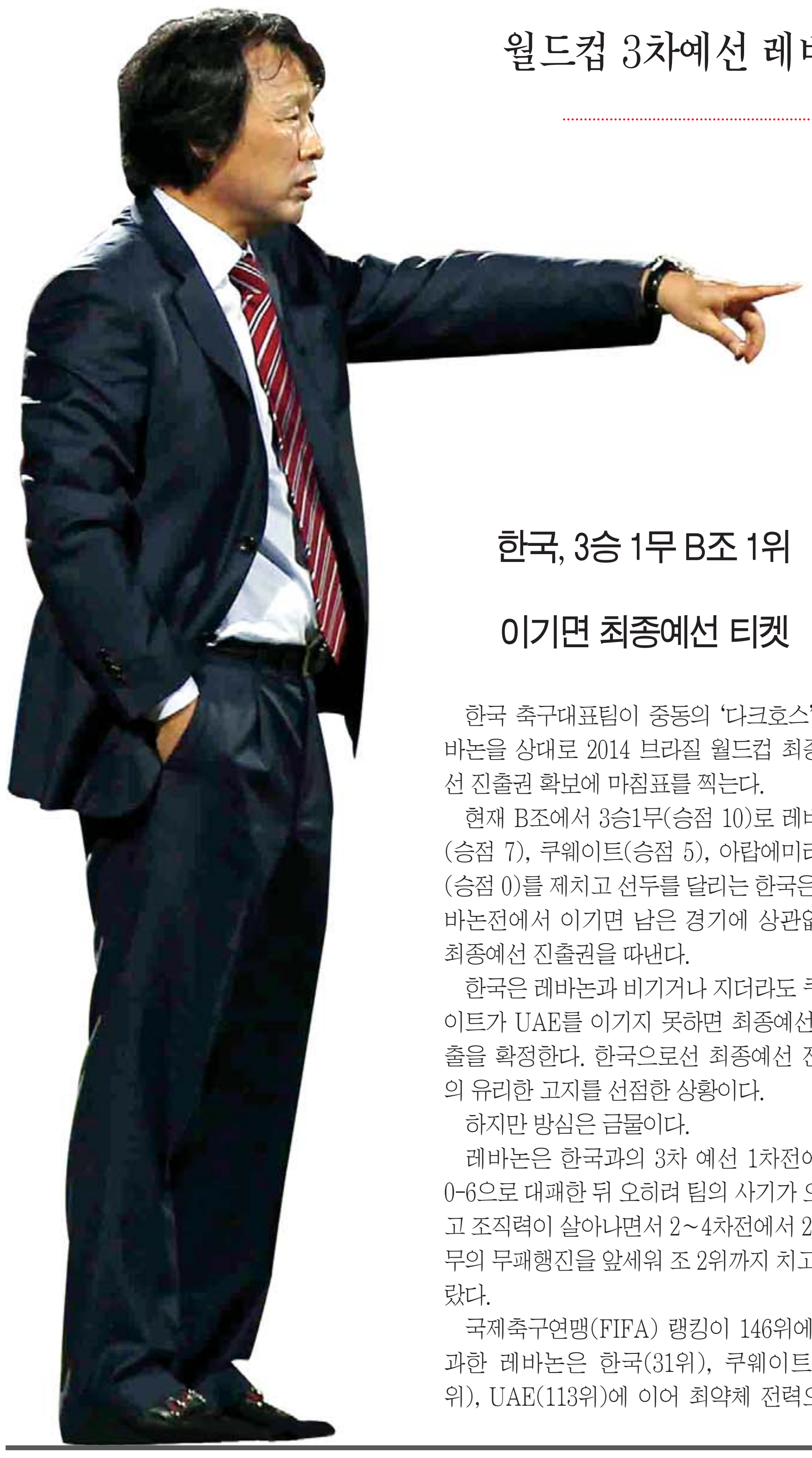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월드컵 3차예선 레바논戰 나서는 조광래 감독

“오늘 끝내자”

한국, 3승 1무 B조 1위

이기면 최종예선 티켓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동의 ‘다크호스’ 레바논을 상대로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권 확보에 마침표를 찍는다.

현재 B조에서 3승1무(승점 10)로 레바논(승점 7), 쿠웨이트(승점 5), 아랍에미리트(승점 0)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는 한국은 레바논전에서 이기면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최종예선 진출권을 따낸다.

한국은 레바논과 비기거나 지더라도 쿠웨이트가 UAE를 이기지 못하면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한다. 한국으로선 최종예선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레바논은 한국과의 3차 예선 1차전에서 0-6으로 대패한 뒤 오히려 팀의 사기가 오르고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2~4차전에서 2승1무의 무패행진을 앞세워 조 2위까지 치고 올랐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146위에 불과한 레바논은 한국(31위), 쿠웨이트(96위), UAE(113위)에 이어 최약체 전력으로 분류됐지만 ‘깜짝 활약’으로 최종예선을 넘보는 다크호스로 인정받고 있다.

조광래 감독은 레바논의 전력을 분석한 결과 중앙 돌파가 강하고 측면 공격에 대한 대비가 잘 돼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걸맞은 ‘변형 전술’로 승리를 노린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대표팀 합류가 불발된 기성용(셀틱)과 경고누적인 박주영(아스널)이 레바논전에 나서지 못하게 됨에 따라 조 감독은 원톱 스트라이커에 이근호(감바 오사카)를 배치하고 좌·우 날개에 이승기(광주)와 서정진(함부르크)을 배치하는 스리톱 조합을 내세울 전망이다.

이근호는 UAE와의 4차전에서 후반 34분 교체투입돼 결승골을 뽑아내는 맹활약을 펼쳐 박주영 대신 공격 선봉을 맡았다. 컨디션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지동원(선덜랜드)은 교체멤버로 나설 공산이 크다.

레바논의 중앙 공격 차단은 구자철(볼프스부르크)-홍정호(제주)의 ‘더블 볼란테’가 담당하고 포백(4-back)은 이용래(수원)-이정수(알 사드)-곽태휘(울산)-차두리(셀틱)가 맡는다. 골키퍼는 정성룡(수원)의 몫이다.

/연합뉴스

광주 FC의 이승기(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월드컵대표팀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현지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발 이승기 “왼쪽 공격 내게 맡겨”

손흥민·서정진과 함께 첨병 역할

“기회 잡아 공격포인트 올리고 싶다”

광주 FC 이승기가 ‘조광래호의 황태자’자리를 노린다.

광주의 프랜차이즈 스타 이승기가 15일 오후 9시30분(한국시간) 베이루트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B조 5차전 레바논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한다.

조광래 감독은 레바논과의 경기에 앞서 치러진 현지 적응훈련을 마친 뒤 선발 라인업을 공개했다.

4-2-3-1의 포메이션을 내세운 조 감독은 이승기를 왼쪽 날개로 투입해 손흥민, 서정진과 함께 공격진의 첨병 역할을 주문할 예정이다.

조 감독이 구상한 필승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승기는 대표팀 소집 두 번째, 4경기 만에 선발 출전의 꿈을 이루게 됐다.

이승기는 지난 9월 26일 폴란드전 및 월드컵 3차예선 UAE(아랍에미리트)전을 앞두고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쟁쟁한 경쟁자들에 밀려 벤치 신세에 그쳤다.

하지만 조광래호 공격의 핵심인 박주영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레바논 전에 나올 수 없는 데다 UAE전에 원톱으로 포진했던 지동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몸놀림을 보이면서 이승기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이승기의 노력도 더해졌다.

첫 대표팀 소집 당시 조 감독으로부터 “축구 지능이 뛰어나고 영리한 플레이를 한다. 태극마크를 처음 달았지만, A대표팀 훈련에 어색해하지 않고 잘 적응한다”는 호평을 들었던 이승기는 “그라운드에 나서면 좋겠지만 욕심 부리지 않겠다. 꾸준히 대표팀에 나올 수 있도록 내 능력을 모두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묵묵히 기회를 노렸다.

두 번째 소집에 나섰던 이승기는 지난 11일 UAE전에서 후반 19분 교체 투입되며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라운드에서 강렬한 모습을 선보인 이승기는 후반 43분 이근호의 결승골을 이끄는 등 한국의 2-0 승리에 일조하며 조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 감독은 “이승기는 컨트롤이 좋고 템포를 조절할 줄 안다. 리듬이 좋다. 왼쪽 날개로 세워 레바논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기회가 오면 중앙으로 옮겨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승기의 각오도 남다르다.

이승기는 “광주에서도 왼쪽 날개 자리를 본 적이 있고 주 포지션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여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며 “팀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기회가 오면 공격포인트도 올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엄마의 힘’ 42살 매튜 우승

LPGA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김인경 공동 2위·서희경 5위

김인경(23·하나금융그룹)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0만 달러)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김인경은 13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골프장(파72·6644야드)에서 열린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1개를 보태 1타를 줄여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했다.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와 함께 공동 2위에 오른 김인경은 12언더파 276타로 우승한 카트리나 매튜(스코틀랜드)에는 4타 뒤졌다.

올해 42살인 매튜는 2009년 8월 브리티시 여자오픈 이후 2년3개월 만에 LPGA 투어 개인 통산 4승째를 거뒀다. 매튜는 둘째 딸을 낳은 지 11주 만에 2009년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선수다.

서희경(25·하이트)은 5언더파 283타로 미야자토 아이(일본), 줄리 잉스터(미국)와 함께 공동 4위를 차지했다. 2009년 대회에서 우승했던 위성미(22·나이키골프)는 2언더파 286타를 쳐 공동 9위에 자리했다. 세계 랭킹 1위 청야니(대만)는 3오버파 291타를 기록해 공동 19위로 처졌다. /연합뉴스

멕시코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카트리나 매튜가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풋살 광주신화 유소년팀· FC팀 우승·준우승

천안시장배 전국대회

광주 풋살 꿈나무들이 제3회 천안시장배 전국풋살대회 유소년경기(8~9세부)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신화 유소년팀이 12~13일 천안시축구센터에서 열린 전국풋살대회에서 전승행진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신화 FC는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신화팀은 유소년팀과 FC팀으로 나눠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싹쓸이하며 올 시즌 첫 전국대회 제패에 성공했다.

한편 이번 대회 유소년부에는 18개팀이 참가해 각축을 벌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